



84년도 건축사교육 완료 총 1천 9백81명 교수이수

'84년도 제 6 기 건축사 교육이 지난 9월27일부터 9월29일까지 3일간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실시되었다.

건축사법 제30조의 2항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건축사 교육은 84년도로 제 6기를 맞았는데 총 이수대상자 2천61명중 1천 9백81명이 본 교육을 이수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교육은 기술과목에 있어 새로운 기술전과 및 설계사례교육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고 그 밖에도 사회정화구현에 기여할 의식 함양과 국민정신강화를 위한 교양교육실시가 있었고 회원 상호간의 기술정보교환 및 친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도 있어 유익한 기술정보와 친목도모의 자리가 되기도 하였다.

건축설계 도서 작성요령집 발간

본회 설계도서연구분과위원회와 구조연구분과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총정리하여 건축설계 도서 작성요령집을 펴내게 되었다.

이 연구서는 설계도서연구분과위원회의 82년도 및 83년도 연구사업과 구조연구분과위원회의 83년도 연구결과로서 내용을 보면 제 1편에 일반건축

부문 설계도서, 제 2편에 설계도서 작성실예, 제3편에 구조기준도를 수록했으며 건축설계 제도의 기본적인 표현기법을 성립하여 업무의 일체성을 도모하고 능률적인 창작활동을 기대하기 위하여 발간한 것으로서 회원업무

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발간된 연구서는 제 1부로 작성된 것이며 건축구조별로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 사업으로 연구를 지속할 계획으로 있다.

下都給 거래질서방안 마련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대기업인 原사업자의 불공정행위는 물론 중소 하도급업자들의 부당행위도 강력히 규제함으로써 하도급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실은 앞으로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 △하도급 업자가 무기명 또는 假名으로 原사업자의 부당행위에 관한 진정서를 낼 경우 이를 일체 사실조사없이 기각처리하고 △무고행위는 관계기관에 고발하며 △상습적인 부당행위자에 대해서는 건설업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면허취소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실은 대부분 대기업인 原사업자들이 사회여론 때문에 진정및 고발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악용, 일부 하도급사업자들이 허위진정을 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어 하도급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이같이 엄격히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발생한 하도급업자들의 허위진정행위 중에는 △다른 입찰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응찰, 하도급계약을 맡은 후 原사업자의 강압에 의해 공사대금이 부당하게 책정되었고 진정한 것 △정부공사의 경우 原사업자와 관련된 현장감독관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가 거절되자 이를 투서한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하도급업자가 공정거래실에 신고 또는 진정해 온 1백57건중 87건이 기각됐는데 이중 30여건은 허위사실을 진정한 것이거나 하도급업자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사항이었다고 공정거래실은 밝혔다.

건축사법·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부는 건축사법과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9월25일 입법예고하였다.

건축사법 개정안은 그동안 본회 법연구분과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작성,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시안을 작성 건설부에 건의한바 있는 것으로서 건설부측에 의하여 최종 마무리되어 입법예고 된 것이다.

건축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복잡한 현행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규정을 고쳐 단독사무소와 종합사무소 2종으로 단순화하고 종합건축사 사무소로 하여금 기술집약화, 대형화하여 국제진출에 대비한 대외 경쟁력을 배양토록

하였으며 건축사 사무소 폐쇄처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사 개인업무정지제도로 전환하고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자에 처분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가벼운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벌금형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케하고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의제규정을 삭제키로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다.

건축법 개정안은 현재 단독주택이면서 수도개의 세대가 함께 거주하기 위한 이른바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축법상 규제가 엄하게 적용되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됨으로써 사실상 그 이상 세

대가 거주할 주택임에도 화장실, 외부 계단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세대별로 설치하지 못하는 등 주거환경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몇개의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구조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벌칙을 합리적으로 완화 조정하여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하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된 것이다.

콘크리트 造景올타리 한국입체조경, 量産, 시공

한국입체조경(대표 徐建熙)은 '88올림픽에 대비한 콘크리트製 조경올타리의 새 공법을 개발, 대량시판 및 시공에 나섰다. 이 올타리는 표면이 정교하고 디자인이 다양하며 도색이나 사후관리비가 전혀 들지않는 반영구적 제품이다.

특히 이 조경올타리는 조립식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이음새 안쪽의 흙에 「물-탈」을 채워 경화시키므로 견고하고 마감공사가 필요없다.

이 콘크리트제 조경올타리는 아파트난간, 집합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올타리, 화분대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건축대전 입상자 발표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회장 羅相紀)가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건축대전은 일반공모부문에서 기호론적 공간구성을 처음 시도「연립주거 계획안」을 설계한 金成澤(28·汎건축근무), 朴泰弘(24·弘益大졸), 金基瑞(23·弘益大대학원)씨가 영예의 大賞을 차지했다.

총 1백17점으로 예년보다 많은 출품 작중에서 金榮浩·金成洪씨의「주거단지 과거·현재·미래」, 李尚鎬·徐璣·林采震씨의「과학박물관」, 郭璿圭·張容鎬·趙相勳씨의「국민학교」등 3

점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는 李振義문공부장관, 鄭漢模문예진흥원장 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대전 개막식이 있었다.

양동지역 고층건물신축으로 정화 서울시, 86년까지 재개발 완료

윤락가와 범피소굴의 대명사로 불리던 서울역앞 양동일대가 오명을 씻고 고층빌딩 숲으로 바뀌고 있다. 북서쪽으로 서울역을 안고 동남쪽으로 남산을 등에 지고있는 양동지역은 해방이후 70년대초까지 무허가 하숙집과 윤락가가 난립, 서울의 치부로 지적됐다.

70년대 중반 서울역 맞은편에 23층짜리 대우빌딩과 21층짜리 럭키빌딩이 들어서면서 북쪽도로변이 일부 정리되긴 했지만 건물 뒷편은 여전히 윤락가로 남아 있었다.

양동지역이 불명예를 씻게된 것은 서울시가 지난 78년말 이 일대 2만7천8백평 전역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확정, 80년대 들어 개발을 적극 추진하면서 부터이다.

이 개발계획은 이 일대 2만7천8백55평에 흩어져 있는 1~3층짜리 낡은 건물 1백16동, 3~4층짜리 1백6동 등 모두 2백72동의 낡은 건물을 헐어내고 11개지구로 구분, 14동의 대형고층건물 군을 조성 도로공원 주차장 등을 완벽하게 갖춘 타운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8지구의 럭키빌딩과 9지구의 대우빌딩 10지구의 남대문교회 4-2지구의 한광역상 교사 등 기존의 4개 건물외에 10개 고층건물이 새로 들어서게 됐다.

이 가운데 7지구의 23층짜리 힐튼호텔은 이미 완공됐고 18층짜리 대우복지빌딩(6지구)과 힐튼호텔부속 8층

건축대전은 국내의 건설 건축과 함께 병행전시되는데 수상자는 다음과 같

◇특선 ▲韓忠國·鄭玉基·崔守·金成培·丁俊榮▲金志浩·李鍾協·金翰俊 ▲朴鍾聲·南熙喆·姜晶圭

짜리 주차빌딩이 연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 유화개발이 1지구에 지하5층지상20층짜리 업무 및 판매용건물을 짓기위해 기존건물을 현채 철거중이며 4-1지구와 5지구에는 토지개발공사가 내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총회가 힐튼호텔에서 열리기 전까지 18층 안팎의 고층건물 신축으로 주변을 정화키로 했다.

나머지 2지구와 3지구도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 재개발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함께 대우빌딩과 힐튼호텔사이 비탈에 8백90평 규모의 도심소공원을 조성, 빌딩출입자들의 휴식처로 제공되며 남산순환도로 쪽에는 폭40m 도로, 힐튼호텔 뒷편으로는 반달모양의 폭20m 도로가 뚫린다. 또 건물 사이사이에 폭8m 도로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오는 86년까지 양동지역 재개발계획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어 그때쯤에는 이 지역은 옛날의 양동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 일대 재개발이 끝나면 건물대지면적은 현재의 93.1%인 2만5천9백평에서 70.7%인 1만9천6백평으로 줄어들고, 도로는 6.9%인 1천9백20평에서 26.1%인 7천2백78평으로 늘어난다. 또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공원은 도심소공원 8백90평 외에도 건물마다 녹지공간을 확보하게 돼, 서울에서 가장 쾌적한 도심지역이 된다는게 서울시 관계자의 말이다.

종합건설업면허제도제정(안) 반대의견 건의

건설업법 개정안중 제123조의 종합

건설업 면허 신설에 따른 설계, 시공,

동시 발주 전담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84. 8. 28일자 본회 회장단과 건설부 관계관의 긴급 협의를 거쳐 법률개정 반대의견 제시를 하여 건설법 개정안중에서 종합건설업 면허제도를 삭제키로 결정함.

'84년도

서울시건축상품작 모집

서울시는 서울시내의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사 및 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도시미관 조성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는 취지아래 '84년도 서울시건축상작품을 모집하고 있다.

응모대상은 '84년도에 준공하였거나 준공예정인 서울시내 건축물중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또는 대한건축학회가 추천한 작품(주거용·비주거용)에 한하며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건축사가 저작한 작품이어야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작품을 제출할 때는 완공사진 또는 투시도, 배치도, 평면·입면·주단면도 등은 물론, 그외 건물이름, 건축개요(위치, 규모, 주위현황, 기능도 등)와 그밖의 필요한 사항도 제출하여야 한다.

작품은 90×90cm 크기의 판넬 2~5개여야 하고 작품을 제출할 때 제출자 명 표기는 작품과 분리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접수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건축지도과에서 하며 접수기간은 '84년 11월10일 부터 11월20일 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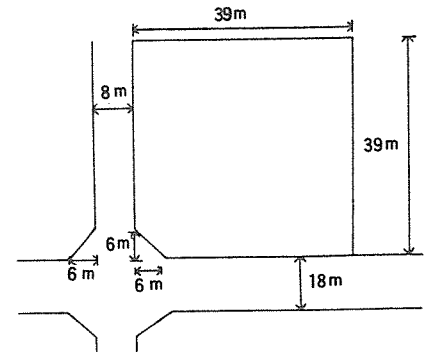
시상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나누어 하며 금상은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1편만을 뽑는데 건축사 1인에게 상패와 부상 1백만원을 수여하며 시공자(1인)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은상은 주거용부분과 비주거용부분으로 구분하여 건축사 2인에게 상패와 부상 5십만원씩을 수여하고 시공자 2인에게 상패를 수여한다. 동상은 주거용부분 1인과 비주거용부분 2인, 도합 3인을 뽑는데 건축사 3인에게

건축계획 (주관식)

다음 4 문제중 3 문제만을 선택하여 기술하시오. (3×20점·60점)

주의 : 3 문제를 초과하여 기술한 것은 답안 전체를 무효로 함.

1. 建築에 영향을 주는 自然的 要素와 人爲的 要素에 대하여 記述하시오.
2. 汚水淨化施設의 處理方法의 種類와 各處理方法의 特性을 記述하시오.
3. 백화점 건축계획시 입지조건과 매장구성 및 매장의 통로계획에 記述하시오.
4. 建築計劃의인 側面에서 人間의 生活와 空間의 対応을 論하고, 특히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과 아파트計劃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記述하시오.



건축설계 제목 : 은행(지점)

1. 대지조건
 - 가. 지역·지구 : 상업지역, 방화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 나. 지형 : 평탄지
 - 다. 지반 : 지표면하 15m까지는 연약한 점토질, 그 이하는 견고한 암반층

는 상패와 부상 30만원씩을 수여하고 시공자 3인에게 상패를 수여한다. 시공작품은 내년 1월10일부터 1월25일까지 시정홍보관에서 전시할 예

다음은 84년도 建築士資格試驗問題중 지난 7월 8일 실시되었던 2차 주관식문제와 설계문제임.

라. 도시기반시설 : 전기, 가스, 상하수도 설비가 완비되어 있음.

2. 설계조건

- 가.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나. 층수 : 지하 1층 지상 2층다. 연면적 : 1,600m² ~ 1,750m²
- 라. 설비 : 공기조화설비, 수세식 변소.

3. 도면작성

- 가. 설계설명서
- 나. 배치도(주차장 및 조경계획 포함) S : 1/400
- 다. 각층 평면도(지하층 포함) S : 1/200
- 라. 입면도(정면을 포함하여 2면, 외부 마감 재료 표시) S : 1/200
- 마. 주단면도 S : 1/200
- 바. 단면상세도(지하층 부분 포함) S : 1/30

※ 주의사항 : ① 작도는 반드시 흑색 연필로 할 것.
② 색연필, 사인펜 등을 사용하면 전체를 무효로 함.

정이며 더 자세한 사항을 문의코자 할 때는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 (서울중구 태평로 1가31. 전화 725-7661~9, <교환>766, 704)로 연락하면 된다.